



지난해 11월 21일 (주)육성과 홍성군 양계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닭고기 무료 시식회.

닭고기 소비촉진 운동은 필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홍성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주)육성 오배근 사장

지난해 말 조류인플루엔자가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유럽에까지 퍼지자 국내 언론들은 또다시 앞다투어 과대 포장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이후로 국내에서는 단 한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장된 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또 닭고기 먹기를 주저했고,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2003년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여 우리 육계업계에 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앞장서 홍성군을 대표해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주)육성 오배근 사장이다.

현재 (주)육성을 비롯 (주)경우, (주)맥시칸,

오배근 사장이 제 17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주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조금씩 모은 성금을 독거노인 및 불우한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부각되고 있다.



(주)맥시간산업 등 4개의 닭고기 관련 경영체를 운영하는 CEO답게 홍성군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1일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와 함께 도산위기에 빠진 양계농가들을 돕기 위해 홍성지역 주민들에게 닭고기와 계란 소비촉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육성은 이날 판매한 바비큐 훈제치킨의 판매 대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 지난 연말 홍성지역의 양계농가 및 소외된 이웃들은 현실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홍주라이온스클럽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

이렇듯 육성은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힘들어하던 양계농가 및 관련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및 각 행사의 수익금을 전액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홍주라이온스클럽'의 봉사활동

이다.

'홍주라이온스클럽'의 17대 회장직을 지낸 오배근 사장은 99명의 회원들과 매년 조금씩 모은 성금 2천여만원을 독거노인 및 불우한 이웃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

홍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한해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외로운 이웃들을 50여 차례 방문하여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몸소 사랑을 실천했다.

홍주라이온스클럽이 지난 18년 동안 모금·지원한 금액만 해도 대략 3억6천여만원 정도 되며, 도움을 받은 사람들만 해도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홍성을 생활체육의 도시로 만들자

오배근 사장은 홍성지역에서 '닭고기 사장님' 말고도 '체육 전도사'로도 통한다.

대학시절 체육학을 전공한 오배근 사장은 현재 홍성군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장에 취임한 오 사장은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생활체육



지난 2003년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장에 취임한 오 사장은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오 사장이 이렇게 생활체육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그래서일까.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는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는 매년 천여명이 넘는 여성이 참여해 배구, 탁구, 댄스스포츠, 민속체조, 재즈·힙합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증진 효과도 느끼는 등 이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체육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축구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꿈나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엘리트체육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오배근 사장은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해 홍성군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회개최를 통해 어린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오배근 사장의 작은 소망 중 하나는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로 인해 홍성군이 생활체육 제1의 지역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오배근 사장은 닭을 사육하고, 판매하

는 ‘주업(主業)’에 충실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육성의 고품질 닭고기를 빠른 시간내 공급하기 위해 지난 1월 홍성에 충청영업소를 개설,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업(副業)’에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나고 있다.

오배근 사장은 “맛있는 닭고기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홍성지역 주민에게 공급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고향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보살피 주는 것이 더해지면 그만큼 더 좋은게 어디 있겠냐”며 앞으로도 2가지 업(業)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오배근 사장의 이러한 고향사랑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